

일제강점기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 유형과 유형별 증·개축 경향

김명선*

¹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Site-Plan Types of Common Design's *Goon* Office Buildings and their Addition & Remodeling in Japanese Colonial Period

Myungsun Kim*

¹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공통도면을 사용해 계획된 군청사에 대해 본가-부속가 연결방식을 기준으로 그 배치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별 증·개축 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디지털이미지로 제공되는 국가기록원 소장 1910년대 작성된 군청사 관련 건축도면을 분석하여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유형 세 가지를 확인하고, 기타 자료를 통해 두 가지 배치유형을 추가발굴한다. 이어서, 각 배치유형을 본가-부속가 연결방식을 기준으로 세분한 후 그 증·개축경향을 정리한다. 연구방법은 군청사 관련 건축도면 디지털이미지, 그 해제,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문서, 신문과 잡지의 기사·도면·사진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이다. 공통형 군청사의 다섯가지 배치유형은 13가지로 세분되고, 각 세분된 유형에서 증·개축은 각 부지의 지형·형상·기타 사정에 따라 달랐지만, 본가는 신축 및 증·개축 상황에서 항상 전면 중앙에 위치하여 관청사로서 상징성과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일관된다. 공통형 군청사의 계획은 1930년대 초반까지도 꾸준히 이어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site-plan types of common design's *Goon* office building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the main building's shape and main & attached building connection way and to investigate all the types' addition & remodeling ways. The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alysing the digital images, the annotation of the images, official document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o*, and articles of newspapers or journals. The site-plans are sorted 5 types and subdivided 13 as their addition & remodelling ways. The initial shapes of site-plan were changed to apply every *Goon*'s site circumstances, The main buildings were always in the center ahead and attached buildings behind or next to them in any cases of new construction, addition or remodeling. The buildings of the common design's were constructed until early 1930s and it means that their architectural level was lower than *Pu* office buildings, although both had same administrative level.

Keywords : *Goon* Office Building, Site-Plan Type, Common Design, New Contruction, Addition, Remodeling

1. 서론

군청사나 읍·면사무소 같은 일제강점기 하급 지방행정관청사에 대한 건축적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도면이 디지털 자료로 구축되고 [1] 그 해제(『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I』, 이후 『해제』

로 약칭함)가 발간되어[2] 기초자료가 확보된 데 힘입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한옥을 군청사로 개축한 경향을 밝힌 연구[3], 기존건물을 전용한 군청사들의 증·개축 경향을 밝힌 연구[4]가 나온 상태다.

한편,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 관할 관청사는 ‘공통도면’과 ‘개별도면’에 의거해 계획하거나 건축되었는데[2],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ersity)

Tel: +82-41-530-2323 email: rosaria@sunmo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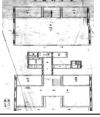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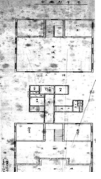
Received August 7, 2015

Revised November 6,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Table 1. Common plan(drawn in 1910s) for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type 1~3 collected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floor	type 1: classification by area			type 2	type 3: main bldg and annex linked by connecting corridor	
	class 1	class 2	class 3		type 3-1: back and forth	type 3-2 : aside
first				-	-	-
ground						

*source) [2]: 370-373.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관련 도면 대부분은 공통도면이자 1910년대 작성(작성 추정)된 것으로, 1920년대초까지도 군청사 건축에 공통도면이 많이 사용되었다[2]. 『해제』는 공통도면을 사용해 계획한 군청사를 ‘공통형’, 개별도면을 작성하며 계획한 군청사를 ‘개별형’으로 분류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41건의 공통형 군청사와 3건(청도·의주·달성)의 개별형 군청사 도면이 소장되어 있다[2].

국가기록원에 소장 군청사 관련 도면은 향후 군청사 건축 연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들인데 1910년대 작성되거나 작성 추정되는 공통도면이 대부분이라 1920년대 이후 군청사의 건축경향과 개별형 군청사 자료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이 연구는 이 부족한 점을 1차 자료의 추가 발굴로 조금이나마 메우고, 추가 발굴한 자료를 더하여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 유형을 나누고(평면도가 있는 것과 배치도만 있는 것이 있어 배치 유형으로 함), 더 나아가 각 배치유형의 군청사들이 증·개축되면서 어떠한 형상으로 바뀌어갔는지 고찰한 후, 공통형 군청사의 신축계획 경향과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고,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관련 디지털 도면과 『해제』 외에 주요 1차 자료는 조선총독부와 각 도 사이에 오고간 회계 관련 문서, 신문과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같은 잡지에 실린 기사·사진이고, 기존의 연구들도 최대한 참조하겠다.

2.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 유형

2.1 공통형 1, 2, 3

공통형 군청사는 일반적으로 ‘본가(本家)’(‘廳舍’로

표기되기도 함)와 ‘부속가’(附屬家)로 구성되었다. 『해제』는 1910년대 작성된 공통형 군청사들의 배치도를 통해서 구성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①전면보다 측면이 긴 직사각형의 두 층짜리 한 동에 필요 실들을 구획한 형(Table 1의 공통형: type 1), ②단층의 본가와 부속가를 연결복도 없이 앞뒤로 직접 접속하는 형(공통형: type 2), ③단층의 본가와 부속가를 앞뒤 혹은 옆으로 나란히 두고 연결복도로 연결하는 형(공통형: type 3-1과 공통형: type 3-2)이다. 공통형 1과 공통형 2는 공통도면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안으로 지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2.2 공통형 군청사의 신축

1910년대 작성 군청사 도면에 공통도면이 대부분인 것은 식민 초기 재정적 여유가 없는 조선총독부가 군청사 같은 하위 지방행정기구는 신축에 공통도면을 사용해 비용을 줄이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한 흔적이라고 보인다. Table 2는 공통도면을 사용해 신축 계획한 53개 군청사를 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국가기록원 소장 공통도면(배치도 혹은 평면도) 41건(Table 2의 ①)에 필자가 찾은 12건(Table 2의 ②)을 추가했다.[2] 추가한 도면 대부분도 1910년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1];[2].

그런데, 이들은 계획도면에 불과해서 달리 글이나 사진자료를 통해 신축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도면이 있다고 해서 신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53건 중에서 덕천군청사(평남)만 글자자료로 신축이 확인되는데, 향청을 전용하다가 1917년 8월 군 내 국유지 약 70여 평에 신축했다[5]. 글자자료는 없지만 사진자료를 통해 신축을 미루어 확인한 있는 경우로 아산·보령·논산·서천·함주군

Table 2.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 assumed to have been built by Common Architectural Drawings

			
① AhSan	② NonSan(1920)	⑤ GimJe(1923-4)	⑥ GoChang(1923)
			
③ SeoCheon(1921)	④ HamJu	⑦ SanCheong(1924)	
a)		b)	
*source)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⑥ [11], ⑦ [12]			

청사(모두 충남)가 있다(Table 3의 a)).

그런가 하면 도면은 없지만 사진을 통해 공통도면을 약간 변경해서 신축했으리라 짐작되는 경우로 1920년대 초 신축된 김제·고창·산청군청사가 있다(Table 3의 b)). 이 경우까지 수합하면 총 61건이다. 1920년대 전반기까 지도 군청사는 공통도면에 기초해서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을 가하거나 공통도면이 참조가 되어 신축 계획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청사 공통도면의 배치도(일부는 평면도) 유형을 4가지 (Table 1의 공통형 1, 2, 3-1, 3-2)로 정리하지만, 자료를 넓히면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도 유형을 더 찾을 수 있 다. 이 장에서는 이들 배치도를 유형별로 재정리하되 각 유형별로 증·개축된 배치도가 있다면 이것까지 포함했 다. 이를 통해 초기 공통형 군청사가 어떤 건물형상을 취 하면서 증·개축되어가는지 살펴보겠다.

3.1 공통형 3-1

Table 4는 Table 1의 공통형 3-1과 같은 외곽선을 가 진 군청사 배치도를 세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가와 부 속가 모두 옆으로 길쭉한 형상에 앞뒤 별동으로 자리하 고 그 사이를 연결복도가 있다. 부지가 앞뒤로는 여유 가 없고 옆으로 긴 경우 채택되었을 것이다.

3. 공통형 군청사의 배치 유형 및 증·개축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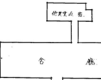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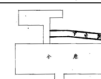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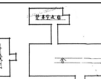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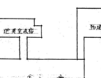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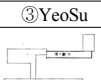
서론에서 정리한 대로 『해제』는 국가기록원 소장 군

Table 3.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 planned for newly construction by common architectural drawings

To(道)	Goon administration office at the source (①)	Goon administration office newly found (②)	number	
			①	②
GyeongGi	GwangJu, YangJu, YangPyeong, YeonCheon, JinWi, PaJu		6	
ChungBuk	GyoeSan, YeongDong, OkCheon		3	
ChungNam	NonSan, BoRyeong, BuYeo, SeoCheon, AhSan, YeSan, PyeongTaek		7	
JeongBuk	JinAhn		1	
JeonNam	DamYang, YeoSu, JinDo	JangSeong, GuRae, HaeNam, HwaSun	3	4
GyeongBuk	DalSeong, BongHwa, CheongDo, CheongSong	YeongCheon, UiSeong, GoRyeong, AhnDong, SangJu, OkCheon, YeongIl	4	7
GyeongNam	GeoChang, UIJin, ChangWon		3	
GangWon		InJe, HwaCheon	0	2
HwangHae	JaeRyeong		1	
PyeongBuk	GuSeong, SakJu, SeonCheon, UiJu, UnSan, TaeCheon		6	
PyeongNam	GangSeo, DeokCheon		2	
HamBuk	GyeongWon, BuRyeong, SeongJin		3	
HamNam	SinHeung, PungSan		2	
계			41	13
			54	

*source) [2]: 368. In the line① 41 Goons were arranged along To from the table of the source but UIReung-do(島) at the table is emitted because it is not a Goon from 1915.5, and in the line ② 13 Goons were newly found in this study.

Table 4. Subdivision of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type 3-1 and their additions

	type 3-1A	type 3-1B	type 3-1C
original shape			
<i>Goon</i>	①GwangJu	㉗UhnSan	㉠SeonSan
addition 1		-	
	②JinDo		㉡GoRyeong
addition 2		-	
	③YeoSu		㉢AhnDong
addition 3		-	
	④DamYang		㉣SangJu

*source) ① [13], ㉗ [14], ②~④, ㉠~㉣ [15]

이 Table 4에서, 본가-부속가 연결방식은 같지만 부속가 모양이 약간씩 다른 경우를 3가지 세부유형을 공통형 3-1A,B,C로 정리했다. 대표사례로 3-1-A는 광주, 3-1B는 운산, 3-1C는 선산군청사인데, A형은 광주 외에도 경원·괴산·덕천·부여·서천·양주·연천·예산·청도·청송군청사가 있다. B형의 다른 사례를 발견치 못했고 C형에 영천·의성군청사가 더 있다.

같은 Table 4에서 A형과 C형 군청사가 증축되는 경우도 정리했는데(addition 1,2,3), 필요에 따라 회의실을 부가하거나(부가:addition 1의㉡, 2의㉢, 3의㉣) 창고를 별동으로 만들고 연결복도를 더 설치하고 있다. 이 증축된 부속가로 이어지는 연결복도는 본가 사무실 좌우측에서 양 옆이나 뒤로만 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대지상황에 맞게 부속가를 증축하지만, Table 4의 공통형 3-1-A의 부가 3 사례인 담양군청사에서 회의실을 본가보다 앞쪽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건물의 전면 중앙에 배치한 본가를 넘어서지는 않는 공통점을 보인다.

3.2 공통형 3-2

Table 5는 Table 1의 공통형 3-2에 해당하는 배치도 유형을 부속가 모양에 따라 세분하여 공통형3-2D 및 3-2E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5. Subdivision of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type 3-2 and their additions

	type 3-2D	type 3-2E
original shape		
<i>Goon</i>	①DalSeong (siteplan for new building)	㉠UiJu
addition 1		-
	②YeongIl (siteplan for addition)	

*source) ① [2]: 381, ② [15], ㉠ [2]: 380.

이 공통형은 본가 옆으로 부속가를 두고 연결복도로 잇는 형식인데, 『해제』에는 의주군청사처럼 부속가를 본가 우측에 두는 경우만 정리되었지만(공통형 3-2D), 달성군청사 신축계획안처럼 본가 좌측에 두는 공통형 3-2E 사례가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즉, D형은 의주 외에 달성군청사만 찾았고 E형은 달성 외에도 논산·보령·봉화·삭주·신흥·아산·진안·진위·파주·평택·풍산군청사가 있었다.

증축상황을 알려주는 배치도는 D형의 영일군청사만 발견했는데, 본가 뒤편으로 실 3개(응접실, 회의실, 실명 없음)를 나란히 구획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사무동을 증축하고 본가 중앙 뒷편에서 연결복도를 내어 증축하고 있다.

한편, 부속가를 본가 좌측에 둔 공통형 3-2D의 사례인 보령군청사의 전면부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Fig. 1)이 있어 초기 공통형 군청사의 외관을 가늠할 수 있다. 앞쪽 건물이 부속가이고 뒤쪽 주현관이 튀어나온 건물이 본가인데, 둘 다 외벽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시멘트 바른 한 기단 위에 목조비늘벽 마감을 하고 있다. 본가에서는 중앙현관 좌우측에 세로로 긴 창이 3개씩 나 있는 것도 확인된다. 비교적 값싸게 지을 수 있는 공통형 군청사의 목구조의 외관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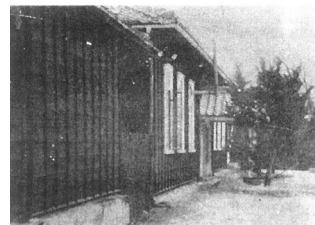


Fig. 1. BoRyeong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ource) [7]: 21

3.3 공통형 4

Table 6은 이 연구에서 새로 발견한 유형인 공통형 4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Subdivision of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type 4 and their additions

	type 4F	type 4G
original shape		
Goon	①YangPyeong	④GuRye
addition1	 ②JangSeong	-

*source) ① [16], ② & ④ [15]. ④ is site-plan for new building and the others are for existing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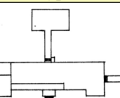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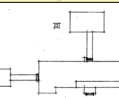
본가와 부속가를 앞뒤로 두고 연결복도로 잇는 점은 공통형 3-1과 같지만, 본가의 뒤쪽 중앙부가 돌출되고 그 돌출부나 옆쪽에서 부속가로 잇는 연결복도가 나는 점, 부속가의 형상이 거의 정사각형인 점이 다르다. 부속가의 형상에 따라 양평군청사 같은 4-F형과 구례군청사 신축계획안 같은 4-G형으로 양분할 수 있다. F형으로는 그밖에 옥천·재령군청사가 있고, G형으로는 해남(신축계획안)·화순군청사가 더 있다.

F형의 증축사례로 장성군청사가 있는데, 초기형의 연결복도에서 다시 옆쪽으로 연결복도를 덧대어 부속가를 증축했다. 앞 유형들의 증축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증축은 전면에 위치한 본가보다는 뒤쪽에서 이루어진다.

3.4 공통형 5

Table 7 역시 이 연구에서 새로 찾은 공통형 군청사 배치도이다.

Table 7. Subdivision of 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type 5

	Type 5H	type 5I
original shape		
Goon	①InJe	②HwaCheon

*source) ① & ② [17] both are site-plans for new buildings.

본가-부속가를 앞뒤로 두고 연결복도로 잇는 한편 인제군청사 신축계획안처럼 본가의 좌측(H)이나 화천군청

사(신축계획안)처럼 우측(I)으로 새 연결복도를 내서 작은 부속가로 다시 잇는다. 앞의 공통형1~4와 달리 본가의 좌우 끝이 앞쪽으로 돌출된 형상을 취하는 점도 독특하다. I형의 또다른 사례로 리원군청사가 있고, 이 유형의 증축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5. 결론

일제강점기 신축계획된 군청사는 공통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된다. 공통형은 일종의 표준도면인 공통도면에 기초해 계획·신축된 군청사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여 국가기록원 소장 공통도면에 기초하여 계획·신축된 공통형 군청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를 공통형1,2,3으로 구분했다. 공통형3은 다시 2가지 형(3-1과 3-2)로 구분되고 각각 3가지, 2가지로 세분되어 계획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밖에 이 연구를 통해 공통형4와 공통형5 군청사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들도 각각 2가지로 세분되어 신축계획되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공통형 군청사는 크게는 5가지 유형이 존재했고, 이 유형을 실제로 신축하기 위해 실제 땅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13가지 세부유형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했다.

공통형1,2를 제외하면 다수의 신축계획 혹은 신축된 사례가 발견되며, 이들이 증·개축을 통해 애초의 배치형상이 바뀌어가는 상황도 추측된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신축과 증·개축 상황에서 본가는 항상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부속가는 그 후방과 좌우로 자리한다. 군의 사정에 따라 부속가의 좌우 및 건물길이, 연결복도의 위치를 달리 해서 배치하면서 유형의 세분을 초래하지만, 공통도면의 원래 구성 안에서 변화가 추구된다.

일제강점기 공통도면이라 불린 표준도면은 대개 시설의 균질성을 유지하되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인 건축을 위해 제작된다. 일제강점기 군청사 역시 공통도면을 통해 신축되고 증축되는 경우가 여럿 발견되는데, 이때 공통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각 군의 지형이나 대지형상 등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본가를 여러 부속가의 가장 앞쪽이자 중심에 배치하는 일관성을 보임으로써 지방행정관청사로서 상징성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1930년대 초반까지도 공통도면을 군청사의 신축계획에 활용되었다. 같은 행정지위를 가진 부청사가 처음부터 개별형으로 지어진 것과 대비되며 조선총독부가 군청사의 건축적 위상을 상

대적으로 낮게 잡았음을 시사해준다.

배치도만 있고 평면도가 없는 군청사 도면이 많아서 이상의 연구결과에 더해 각 실의 구성까지 세세하게 고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어 군청사 배치 및 평면의 전모가 더 자세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s of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July, 2015)
- [2]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notation of the Architectural Draw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Vol. VII, National Archives of Korea, pp.367-389, 2014.
- [3] Joo, Sang-Hun,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4 No.1, pp.7-16, February 2015.
- [4] Kim, Myungsun, "Remodeling and Extension of reused Goon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992-4998, July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992>
- [5] Joo, Sang-Hun, *Characteristics of Building the Modern Facilities administ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 p.361, 2010.
- [5] MaeilSinbo 1917.8.7.
- [6] Kadō Anzai,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ungCheongNam-do*, Honamilbosa, p.111, 1932
- [7] *ChungCheongNam-do, History from the Beginning of ChungCheongNam-do* Vol. 1, ChungCheongNam-do, p.21, p.23, 1997.
- [8] *ChungCheongNam-do, 100 Years of ChungNam seen by Pictures*, ChungCheongNam-do, p.67, 1999.
- [9] Compilation Committee of HamHeung-si Chronicle, *HamHeung-si Chronicle*, Compilation Committee of HamHeung-si Chronicle, p.359, 1999.
- [10] National Museum of JeonJu, *JeonBuk inside of old Pictures 1894-1945*, Tongcheonmunhwasa, p.39, 1998
- [11] MaeilSinbo 1923.11.7.
- [12] Compilation Committee of GyeongSangNam-do Chronicle, *GyeongSangNam-do Chronicle*, Compilation Committee of GyeongSang Nam-do Chronicle, p.6, 1963.
- [13] "Site Geological Arrangement Plan for the Newly Construction of Gwangju-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July, 2015)
- [14] "Site Geological Arrangement Plan for the Newly

Construction fo Unsan-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July, 2015)

- [15] GyeongSangBuk-do, "Budget Plan of GyeongSangBuk-do for the Year of Shouwa 6", no page number, 1931 (document management no.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CJA0002802)
- [16] "Site Geological Arrangement Plan for the Newly Construction fo YangPyeong-goon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July, 2015)
- [17] GyeongSangBuk-do, "Budget Plan for the Year of Shouwa 6", no. page no, 1931. (CJA0002791)
- [18] MaeilSinbo 1930.5.28.

김 명 선(Kim-Myungsun)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2015년 2월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09년 9월 ~ 2010년 8월 : 독일 TU-Berlin 방문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리모델링